

全北地方의 百濟土器에 대하여

崔完奎

一、序

百濟史에 있어서 考古, 美術史에 대한 研究는 漢江流域, 錦江流域의 公州, 扶餘 등 주로 百濟의 王都中心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漢江流域에 있어서는 蠶室地區의 百濟初期古墳과 城址調査가 있었고, 公州, 扶餘에 있어서는 宋山里, 陵山里古墳을 비롯한 王族, 支配階層의 古墳, 城址, 寺址 등 주로 百濟中期以後의 遺蹟調査를 들 수 있겠는데, 特히 公州 宋山里 武寧王陵의 發掘은 百濟史研究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할 것이다.

한편, 最近에 활발한 地表調査 및 發掘調査가 이루어지고 있는 榮山江流域의 靈岩, 羅州一帶의 遺蹟들은 大形甕棺墓로서 그 文化的特徵을 가지며, 그 出土遺物에 있어서도 前記 百濟遺蹟에서 出土된 遺物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榮山江流域의 이러한 문화형태는 百濟故地이면서도 王都와 멀리 떨어져 있고, 新羅나 伽耶文化圈과 地理的으로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獨特한 文化를 형성했다고 이해된다.

全北一圓의 百濟文化遺蹟들은 一九七五年 益山 彌勒寺址東塔址의 發掘을 始發로 이들 文化遺蹟에 대한 調査가 꾸준히 進行되고 있다.

益山地域에 있어서는 彌勒寺址, 王宮城址, 益山土城의 發掘調査와 이地域一帶의 地表調査를 통하여 百濟末期의 益山別都 내지는 遷都에 대한 근거를 考古, 美術史的 측면에서 研究하기에 이르렀고, 每年 馬韓, 百濟文化研究所에는 學術會議를 開催하여 益山文化圈을 設定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全北地方의 西南에 위치한 井邑, 高敞, 南原地域은 百濟의 古墳과 城址, 窯址等 많은 百濟文化遺蹟이 산재해 있으나 局部的인 發掘 및 地表調査 以外에 全般的인 考古, 美術史의 研究는 他地域에 比하여 부진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물론 諸般의 遺蹟 王都中心의 遺蹟調査는 필연적인 結果이겠으나 앞으로 百濟故地의 광범위한 研究가 이루어져야만이 百濟史에 대한 體系的이고 綜合的인 檢討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稿의 考察對象인 百濟土器는 燒成度에 따라 軟質과 硬質로 나뉘며 이는 百濟의 全時期를 통하여 共存되고 있으며, 文樣에 있어서는 繩文과 格子文이 主를 이루며, 線文이나 波狀文도 보인다. 百濟土器의 器種은 新羅나 伽耶土器에 比해 多樣한 편으로 壺, 二重緣壺, 耳付壺, 臺付壺, 把手付壺, 橫口壺, 有孔壺, 瓶, 器臺, 高杯, 大接, 鉢, 盆, 蓋, 把手付罍, 三足土器, 蓋杯, 骨壺, 陶硯, 燈臺, 注器, 便器, 시루 등으로 나뉘며 ① 遺蹟에 따라 약간의 出土樣相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百濟土器중 가장 많은 出土量을 차지하는 것은 壺로서 百濟遺蹟의 全般에서 出土되고 있으며, 百濟의 要素를 濃厚하게 포함하고 있는 器種으로는 三足土器, 陶硯, 骨壺, 器臺등인데 이들은 公州時代以後의 遺蹟과, 地域도 이에 局限되고 있어 時代的, 地域的 特徵을 부여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百濟土器에 대한 論考로는 百濟土器의 起源을 살피고 그 種類 및 形態와 文樣 그리고 百濟土器의 發達過程을 壺를 中心으로 分析考察한 安承周의 「百濟土器의 研究」가 있으며 특수한 器種을 대상으로 考索한 論考는 徐聲勳의 「百濟의 土器瓶考察」과 「百濟器臺에 대하여」와 姜仁求의 「百濟陶硯에 대하여」 등의 論考를 들 수 있다. 한편 百濟土器의 地域的 特性 및 發達을 考索한 것으로는 尹武炳의 「連山地方 百濟土器의 研究」를 들 수 있다.

以外에는 大部分 百濟土器에 대한 論考는 古墳을 비롯한 各遺蹟의 發

掘報告書에서 遺蹟의 性格 및 考察과 더불어 言及되고 있다.

本稿의 目的은 全北一圓의 百濟文化遺蹟에서 收拾, 出土된 百濟土器를 研究對象으로 하여 全北地方以外的 遺蹟에서 出土된 土器들과 比較考察을 通하여 이 地方의 土器性格 및 특징을 살펴보고 가능한 그 年代를 設定하여 百濟時代의 全北地方 文化的 性格을 일부분이나 糾明해 보고자 한다.

二、全北地方의 百濟遺蹟과 出土土器

一、益山地域

一、益山土城

五金山城, 報德城이라 불리는 이 城은 圓光大馬韓, 百濟文化研究所에서, 一九八〇年度에 一次發掘調査^②와 一九八四年度에 二次發掘調査^③를 通하여 城의 規模 및 築城方法 그리고 性格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 城의 類型은 되피식 卽 山頂式으로서 馬鞍形을 이루며, 公州, 扶餘에 殘存하는 百濟山城과 유사한 形態를 하고 있다. ④ 築城方法은 南便 卽 高地帶에 해당하는 곳에는 治石된 四口石으로 難層쌓기로 쌓았으며, 高地帶인 北便에는 土石混合으로 다져 쌓았다. 한편 南便의 계곡에는 城築下部에 雜石을 무질서하게 다져 넣어 自然 배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出土遺物은 土器類, 瓦當類가 대부분 차지하며 一次發掘時에 鐵製斧, 보습, 鐵釘 등이 發見되기도 하였다. 이들 遺物은 大部分 城의 內部과 장에서 發見되었으며 城築부근에서는 거의 遺物을 볼 수 없었다.

① 壺

a、外反口緣平底壺

大部分 破損된 채로 發見되어 뒤에 복원한 것들이다. 高는 三三~三八 cm 로 中形에 속하며 破片中 1點은 器壁의 두께가 一、三二 cm 나 되는 超

大形으로 추정된다. 口緣은 外反했으며 灰色調의 硬質로서 肩部에서 胴體部 下段까지 繩文이 施文되었다. 몇 點은 肩部에 산화된 自然釉가 나타나 있다.

b、廣口壺(高 一三 cm, 口徑 一二 cm, 底徑 八 cm)

灰青色을 띠고 있는 硬質土器로 器壁이 매우 얇다. 口部는 두껍게 보강하여 外反했으며 목은 약간 길다. 肩部에는 날카로운 송곳같은 施文具를 使用하여 魚骨文을 새겨 돌렸다. 底部는 平底이며 成形時에 생긴 자욱으로 미루어 따로 만들어 붙인 것으로 보인다. 胎土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器表에 군데군데 균열이 보인다.

c、直立短頸小壺(高 四·五 cm, 口徑 四·一 cm, 底徑 四·二 cm)

작은 형태로 口緣은 짧게 直立하고 器表에 검은 피막이 씌워져 있는 軟質土器다. 器身 中間이 급격히 팽창하여 器高보다 넓다. 器表와 內部에 물레성형 자욱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② 瓶形土器

球形器身(高 二四 cm, 口徑 二·一 cm, 底徑 一〇·五 cm)과 廣肩形(現 高 一一·三 cm, 底徑 一〇 cm)로 나뉜다.

前者는 口部의 一部分이 破損되었고 器身 全面에 繩文을 施文한 뒤 얇게 문지른 흔적이 보인다. 底部는 缺損되어 三分法의 흔적이 屢々하다. 後者는 頸部와 胴體部 一部分이 파손되어 정확한 器形을 알 수 없으나 器壁이 두꺼우며 器表에는 數條의 물레자욱이 나 있다.

한편 瓶의 口部中에는 成形手法가 잘 나타나 있는데 등근관을 쌓아올려 口部를 成形한 것으로 器表는 문질러 이음자욱을 없었다.

③ 釜形土器(高 七·九四 cm, 底徑 一一·九 cm)

破損이 심하나 器形은 알 수 있다. 口緣部는 약간 오므라든 듯하며 斷面 삼각형을 이룬다. 전날개는 파손되어 一部分이 남아 있다. 底部는 넓고 낮은 입을 달았으며 그 內部는 불룩하게 되었다. 아주 고운 胎土를 使用하고 있으며 灰色調를 띠고 있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④ 三足土器

完形은 發見되지 않았고 杯部와 脚部만이 發見되었다. 脚部는 손빛음을 한 圓錐形과 대칼같은 것으로 각아 成形한 角錐形으로 區分된다. 또한 圓錐形의 것은 밖으로 약간 반전시키고 있어 안정감을 주며 角錐形의 것은 大部分 끝이 날카롭다.

⑤ 器臺

原形을 부원할 수 없는 片들이 大部分이다. 모두 公州, 扶餘地方에서 出土되는 長鼓를 半分하여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형태의 器臺片들이다. 灰黑色의 硬質로서 器壁이 두꺼우며 文樣은 隆起帶의 渦形飾과 魚骨文이 施文되어 있다.

⑥ 陶硯

圓筒臺를 부착한 것과 硯脚을 부착한 두 종류로 區分된다. 前者는 그 形態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이며 臺에 圓形의 透孔을 뚫고 있다. 硯堤는 약간 內傾했으며 硯池는 깊은 도랑으로 되었다. 硯岡은 中央部分이 약간 낮아 먹물이 고이도록 되었다.

後者は 破損이 심하여 그 형태는 알 수 없으며 脚의 中間에 턱을 두었다.

⑦ 其他土器

器形을 알 수 없는 전날개 破片은 검은피막이 입혀져있는 軟質과 硬質의 것이 있다.

把手는 牛角形把手와 帶形把手의 二種類가 發見되었으며 牛角形把手는 단면이 원형인 것과 렌즈형으로 區分된다.

한편 牛角形把手付壺는 器壁이 매우 얇으며 一名 샌드위치식의 土器로서 器表에는 灰色이나 壁心은 검은 色調를 띠고 있다. 口緣은 짧은목에 外反했으며 입술에는 부드러운 凹帶를 들렀다. 器身의 最大腹徑은 中央에 있으며 이 部分에 牛角形把手를 부착했다. 窄窄部分이 破損되어 把手가 양쪽에 부착되었던 것이니 分明치 않다.

甌形土器片은 底部만이 發見되었는데 平底로서 中央의 圓孔을 中心으로 六個, 八個의 圓孔을 뚫었다. 모두 灰白色의 軟質로서 부드러운 胎

土를 使用했다.

二、新龍里 百濟土器窯址

益山郡의 彌勒山과 龍華山의 접경地域에 位置하며 現在는 軍部隊가 주둔하고 있어 一般人の 出入이 통제되고 있다.

土器窯址의 현상은 조그만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굴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방공호를 파면서 나타난 퇴적층에는 土器破片들이 層을 이루고 퇴적되어 있다. 이곳에서 수습된 土器들은 一部가 益山綜合高等學校에 所藏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土器는 益山綜合高等學校에 所藏된 土器와 筆者가 現場에서 채취한 土器를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高杯

a、透窓高杯

三角形의 透窓을 가진 것과 方形透窓을 가진 것으로 大別된다. 三角形透窓高杯는 灰黑色의 硬質로서 胎土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杯部는 깊고 넓은편이며 口部에는 뚜껑을 받기 위한 턱이 있다. 臺部는 圓筒形으로 三個의 삼각형透窓이 나 있으며 밑부분에는 두터운 돌대로 보강했다. 杯部의 넓이에 비해 臺部가 낮아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方形透窓을 가진 高杯는 前者와 同一한 形式이며 自然釉가 杯部에 묻어 있다. 透窓은 鑄은方法이 치졸하여 정확한 方形을 이루지 못하고 타 원형과 비슷하게 얼버무려 뚫고 있다.

b、無透窓高杯

破損되지 않고 完形을 갖추고 있는 것이 二點, 破損되고 일그러진 것이 一〇餘點이 수습되었다.

역시 灰黑色을 띠고 있으며 胎土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杯部는 넓고 깊으며 口部가 넓게 퍼져 있다. 即 뚜껑받이턱이 퇴화한 無蓋式高杯에 가깝다. 臺部는 圓筒形으로 밑부분이 갑자기 퍼져 안정감을 주는 나팔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그러진 一〇餘點의 破片은 거의 自然釉가 묻어 있으며 前者와

同一한 형태를 하고 있다.

② 三足土器

杯部와 脚部 數點이 채집되었다.

모두 有蓋式으로 杯心이 깊은 것과 얇은 것이 共存하며 脚部에 있어서도 圓錐形과 角錐形이 共存하고 있다. 圓錐形脚은 끝이 약간 밖으로 반전하고 있는데 一般的인 크기보다 二배 가량 큰 것도 發見되었다. 角錐形脚은 다른 곳에서 보이는 것같이 끝이 뾰족하게 成形되었다.

③ 蓋 杯

모두 有蓋式으로 杯의 口部가 약간 內傾했으며 杯心은 얇으며 底部는 둥근 것과 약간 평평한 것이 있다. 軟質과 硬質이 共存하며 모두 胎土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蓋는 寶珠形鈕를 부착한 것과 杯狀形鈕를 부착한 것으로 나뉘며 前者는 硬質로서 肩部에 陵形을 이루며 口部는 넓게 퍼졌다. 後者는 黑灰色의 硬質로써 口部에 턱을 갖추고 있다.

④ 壺

器形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은 發見되지 않았으며 다만 底部와 胴體部만이 發見되었을 따름이다.

文樣은 細繩文이 主流이고 底部는 平底로서 自然袖가 묻어있는 것도 있다.

二、井邑地域

一、隱仙里 古墳群

天臺山 西斜面中腹의 山麓에 群在하고 있는 橫穴式石室墳群으로 一九七三年度에 全羅北道博物館에서 破墳調査를 實施하였다. ⑤

이곳 石室은 公州나 扶餘에서 發見되어지는 百濟特有的인 것으로서 그 構造에 따라 三類型으로 區分된다.

첫째, 割石造長方形石室、穹窿形天井、東偏羨道(E號墳)

둘째, 板石造長方形石室、玄室斷面六角、中央羨道(A、B、C、D、

P號墳)

셋째, 板割石混用長方形石室、東偏羨道(C、H、L、N、G號墳)
上記 隱仙里 古墳群에서는 大部分 盜掘당하여 副葬品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部落民에 의하여 三足土器、平底壺、金銅耳環 등이 發見되었다 한다.

二、雲鶴里 古墳群

이 古墳群은 竪穴式石槨墓로서 破壞가 甚하여 자세한 古墳의 구조는 發掘結果 밝힐 수 없었으며 그 築造方法만이 파악 되었다. ⑥

A號墳은 正東長軸의 石槨으로 底面은 最下石을 一五cm 정도 묻고 바위에 白土를 갈아 다져 놓은 흔적이 남아있으며 石槨의 길이는 約一〇七cm에 이른다. 築造方法은 약간 正사를 이룬 表土上에 中心部는 약 六〇cm 높이로 하고 底面 주변에는 차츰 얇게 黑色粘土를 깔고 그위에 黃土를 쌓고 그 頂部에 石槨을 構築한 다음 다시 黃土를 덮은 형태이다. B、C號墳은 A號墳과 비슷한 크기 구조를 가지며 破墳이 아주 甚한 채 發見되었다.

收拾된 遺物은 C號墳 주변에서 收란된 채 약간 發見되었다.

① 軟質土器片

赤色土器把手、鉢型器口緣部三點、直立口緣部二點、其他破片과 黑色壺片、杯片一點.

② 硬質土器片

廣口壺片、圓底壺片、直立口緣片、平底壺片、시루片、

三、德川 시루봉山城

斗升山の 東方支脈에 위치하는 山城으로서 土城인데 城의 形態는 百濟山城에서 흔히 보이는 퇴뢰식으로 鞍形을 이루고 있다. ⑦

① 軟質土器片

外反된 壺口緣部、鉢型土器 口緣部、

② 硬質土器

平底壺底部片, 圓底壺底部片,

특히 五個의 蓋杯의 杯가 發見되었는데 이는 杯心이 깊은편이며 모두 有蓋式이다.

四、化龍里 百濟土器窯址

이곳에서 收集된 土器는 廣口壺, 四耳付盃形器, 蓋杯가 있으며 遺構는 百濟窯址로 알려져 왔다. ⑧ 그러나 筆者가 現場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化龍里 一帶는 野山으로서 窯址에 적당한 입지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곳 村老들의 기억에도 窯와 관계되는 地名이나 料資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인근 野山에서 繩文, 格子文이 施文된 百濟土器片만이 이따금 보일 따름이었다.

① 廣口壺, (高 一九·四 cm, 口徑 一五·二 cm, 底徑 七·二 cm)

頸部에는 二段으로 구획하여 波狀文을 施文하였다. 肩部에는 突帶를 두르고 역시 波狀文으로 장식하였다. 肩部는 鑿배하여 最大徑을 이루고 底部는 平底이다.

② 四耳付盃形器(高 七·四 cm, 口徑 一二·九 cm, 底徑 六 cm)

口部는 약간 外反되었으며 器身의 中間部分에 四個의 牛角形把手가 달렸다. 底部는 平底이며 全體的으로 일그러졌다.

③ 蓋杯

杯는 깊은편으로 턱이 높게 시설되었다. 口緣는 약간 內傾했으며 底部는 등글며 三條의 線文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다(高 五·三 cm, 口徑 六 cm).

蓋도 역시 깊은편으로 口部는 넓게 퍼져있다. 上部는 등글며 無鈕式으로 線文이 나타나 있다(高 五·八 cm, 口徑 七·七 cm)

三、高敞地域

一、中月里 遺物散布地

이 遺蹟은 圓光大 馬韓, 百濟文化研究所에서 靈光原子力發電所 取水 施設에 따른 土取관계로 긴급 구제發掘을 실시한 地域이다. ⑨

中月里 遺蹟은 甕棺墓, 石棺墓, 窯址, 유물고관층으로 그 遺構를 區 分할 수 있겠다.

① 甕棺墓 I

合口式甕棺으로서 主棺과 副棺의 底部는 破損되었으나 器形으로 미루어 底部는 卵形으로 추측된다. 主棺은 副棺에 비해 口部가 넓으며 頸部가 길다. 肩部에는 乳頭를 左右에 달고 있으며 頸部下段에는 鋸齒文帶를 두르고 있다. 副棺은 主棺과 거의 비슷한 형태이나 全面에 格子文을 施文하고 있으며 역시 乳頭와 鋸齒文帶가 보이고 있다.

이 甕棺墓는 南北을 長軸方向으로 橫置하였으며 內部에서는 遺物이 發見되지 않았고 다만 고운 흙으로 充填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② 甕棺墓 II

合口式甕棺으로 生土層을 南北 七五 cm, 東西 五〇 cm, 깊이 二〇 cm가 량의 壙을 파고 그속에 百濟土器壺 二點을 橫置하였다. 甕棺으로 使用된 壺는 赤褐色을 띠고 있으며 器壁이 매우 얇다. 口部는 廣口에 짧은 外反했으며 器身의 兩쪽에는 帶形把手가 부착되었다.

이 甕棺의 長軸方向은 北東間과 南西間을 연결한 線上에 놓였으며 南便壺의 把手 한쪽을 上段에서 약간 서쪽으로 기울여 지게 시설하고 있다.

北側壺의 크기는 高 二八·五 cm, 口徑 二五 cm, 底徑 一七 cm, 南側壺의 크기는 高 二八·五 cm, 口徑 二八 cm, 底徑 一五·五 cm로 거의 同形을 이루고 있다.

③ 石棺墓

長軸方向을 東西로 하고 그 크기는 東西長 二〇八 cm, 南北 五〇 cm로 枕向은 東枕임을 알 수 있다. 長軸을 이룬 南壁, 北壁은 各各 四枚의 板石材를 세워 組立했으며 東壁과 西壁은 各各 一枚의 板石으로 세워 놓였으며 西側의 石材와 北壁의 一枚와 南壁 一部는 缺失되었 다. 蓋石은 모두 破損되었고 東端에 蓋石材 一枚만이 남아있을 따름이 었다.

石棺內에는 數個의 土器를 破壞하여 全面에 깔았으나 西端 一部는 깔

지 않았다. 한편 棺內에는 二點의 土器가 東端에 副葬되어 發見되었다.

a、牛角形把手付壺(高 七·二 cm、口徑 八·七 cm、底徑 七 cm)

砂粒이 많이 섞여있는 胎土를 使用하고 있으며 赤褐色을 띠고 있다. 壺는 鉢과 비슷한 形態로서 口部는 짧게 外反했다. 器表에는 均데 均데 검은 피막이 보이며 底部는 平底이다. 把手는 끝부분이 약간 外反되었고 器壁에 比하면 두꺼운 편이다.

b、瓶形土器(現高 一三·二 cm 底徑 七·八 cm)

廣肩壺의 축소형태로서 口部는 外反되고 頸部까지만 完全하다. 肩部 에는 밑집線文이 나 있으며 下段에는 無文이다. 胎土는 모래가 많이 섞 여 있으며 灰黑色을 띠고 있다. 底部는 平底이다.

④ 土器窯址

長 一三〇 cm、幅 一〇〇 cm 정도만 남겨 놓고 破壞가 심한 窯址로서 매우 發達된 地上가 바로 추정된다. 窯址內에서는 뚜렷한 燒成物은 發見되 지 않았으나 주변에서 百濟土器片들이 多數 發見되었다.

⑤ 遺物散布地

a、有孔廣口小壺

底部는 外反되었으나 그 형태는 짐작할 수 있다. 胴徑에 比하여 口徑 은 짧고 頸部에서 V字形으로 퍼졌다. 口部의 中間에는 一條의 線帶를 들렀을 뿐 다른 部分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底部는 圓底로 생각되며 胎土는 燒成度가 높은 硬質이며 灰色을 띠고 있다.

b、三足土器

杯部片과 脚部片 多數가 發見되었는데 杯心는 대체로 얇은 편이며 모두 有蓋式이다. 脚部는 圓錐形과 角錐形이 共伴하고 있다.

c、蓋杯

杯心는 깊은 편이며 口部는 약간 內傾하고 있다. 뚜껑받이턱은 높으며 그중 一點은 鉢과 같이 杯心이 더욱 깊으며 口部는 外反되었다.

蓋에는 無鈕式과 杯狀形鈕를 부착한 것의 두 종류가 發見되었다. 無 鈕式蓋는 口部가 벌어져 있으며 肩部 下段에 턱을 두고 있다. 杯狀形鈕

蓋는 口部가 안으로 오픈라 들었으며 肩部가 평평하다.

d、高杯

高杯는 상당량 發見되었는데 有蓋式과 無蓋式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高杯는 모두 杯部가 넓고 깊은 점, 臺足이 낮고 넓은 점, 여러개의 透窓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有蓋式高杯는 口部가 벌어져 實用的인 面에서는 無蓋式에 가깝다. 낮 은 臺足에는 方形透窓을 一〇個、四個、三角形透窓을 뚫은 것이 있으며 臺足下段에는 突帶를 두르고 있다.

無蓋式의 경우에는 杯의 형태가 盥에 가까우며 뚜껑받이턱을 생략한 채 陽刻이나 陰刻線帶를 두르고 있다. 臺足에는 有蓋式과 같은 手法으 로 透窓을 뚫고 있다.

胎土는 모두 精選된 粘土를 使用하고 灰色을 띠고 있다.

二、雲谷里土器窯址

窯室床面은 下邊이 넓고 上邊이 좁은 抹角梯形을 이루며 約 一〇度의 경사로 위로 올라가며、南邊에서 北邊으로 約 六度의 傾斜를 이루어 左 高右低를 이룬다. 크기는 길이 約 六 cm、下邊幅 四·五 cm、上邊幅 約 二 cm이다. 雲谷里窯址는 地表下에 埋沒되어 거의 完形으로 남아 있었 으며 많은 土器破片들이 堆積되어 있었다.

① 壺

直立口緣片과 外反口緣片、등 破片이 주로 發見되었으며 前者中 一點 은 肩部에 三條의 陰刻線帶를 두르고 있으며 二點은 打捺文이 施文되어 있다. 外反口緣은 瓶形土器의 口部와 波狀文이 施文되어 있는 廣口壺의 口部는 區分된다. 모두 灰青色硬質土器로 高火度에서 燒成되었다.

② 三足土器

杯는 모두 有蓋式으로 낮은 편이다. 脚部는 圓錐形과 角錐形이 共伴하 고 있다.

③ 壺

寶珠形鈕、杯狀形鈕、無鈕式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모두 肩部의 끝에

턱을 두고 있으며 口部는 약간 벌어졌다.

三、新月里甕棺墓

이甕棺은 卵形胴體를 가진 大甕의 口部를 맞대어 수평으로 누운 이른바 合口式甕棺墓이다. ⑪ 이甕棺墓 内部의 副葬遺物은 發見되지 않았고 그 주위에서 八點의 遺物이 수습되었다.

① 長頸壺

其一是 一부가 破損되었으며 口部는 나팔형으로 넓게 퍼졌다. 頸部에는 五條의 凸帶를 돌렸다. 肩部에서는 完만한 筋사를 이루며 最大徑의 器身中央에 있다. 内部의 接합자욱으로 미루어 三分法으로 成形한 것을 알 수 있으며 底部는 平底이다. 크기는 高二六·二cm, 口徑 一六·六이다.

其二是 高二三·五cm, 口徑 一五·〇cm로 口部가 벌어졌으며 頸部에는 二條의 凸帶를 돌렸다. 肩部에는 산화된 흔적이 보이며 底部는 平底이다.

② 短頸壺(高 一五·五cm, 口徑 一三·二cm)

球形身에 底部는 圓底로서 胎土에는 작은 沙粒이 포함되어 있다.

③ 直立口緣壺(高 一六·七cm, 口徑 一一·〇cm)

口部는 짧게 直立했으며 약간 內傾한 느낌을 준다. 球形身에 器身에는 繩文이 조밀하게 施文되었다. 灰青色의 硬質로서 底部는 平底이다.

④ 廣口小壺

其一是 高一二·四cm, 口徑 九·三cm로 口部는 서서히 外反했으며 肩部는 거의 水平에 가깝다.

其二是 高一〇·五cm, 口徑 七·三cm로 胴體로 一孔이 있는 有孔廣口小壺이다. 頸部는 좁고 넓어졌으며 灰色의 硬質로서 圓底이다.

⑤ 兩耳付壺

모두 원래는 有蓋식이었으나 一點은 蓋를 缺失하였다. 其一是 高一·九cm, 口徑 九·〇cm로 蓋는 圓盤처럼 成形한 뒤 側壁을 붙여 接合部를 附를 짝아내면서 兩耳를 成形하고 耳의 上下從으로 구멍을 뚫었다. 蓋

의 外壁面은 灰色이나 검게 그을려 있다. 壺는 硬質로서 直立口緣으로 뚜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肩部에는 四角形의 耳를 左右에 各各부착하고 從으로 구멍을 뚫었다. 胎土는 長石細粒이 섞인 灰色이며 底部는 圓底이다.

其二是 高一·二cm, 口徑 一〇·〇cm로 上記 其一과 大同小異하다.

四、松龍里甕棺墓

크기가 거의 비슷한 廣口大甕 두 개를 口部를 맞대어 橫置한 合口式甕棺이다. ⑫

① 短頸壺

甕棺의 下邊部와 附近에서 수습한 土器片을 補원한 것이다. 短頸에 口部는 外反했으며 옆으로 벌어져 器高보다 넓은 壺이다. 器身에는 細繩文이 施文되어 있고 등간격으로 細線條文을 돌렸다. 底部는 圓底로서 格子文을 施文했다. 胎土는 고운 모래가 섞여 있으며 灰色이 돌는 硬質이다.

四、南原地域

一、草村里古墳群

이 古墳群은 二〇〇餘基가 群集하고 있으나 거의 破壞되고 處女墳으로서 石室墳 一基(M六〇號) 甕棺墓 一基(M一二〇號)를 發掘調査했을 뿐이다. 그러나 破壞墳의 實測調査로 大略 四個類型的의 石室墳으로 區分된다. ⑬

第Ⅰ型：長方形石室、東偏羨道、側壁內傾、下壁面石使用、

第Ⅱ型：長方形石室、西偏羨道、側壁內傾、下壁面石使用、

第Ⅲ型：廣幅長方形石室、中央羨道、側壁內出、北壁直立、下壁面石使用、

使用。

第Ⅳ型：狹幅長方形石室、無羨道、橫口式側壁內傾割石積、

M六〇號墳은 第Ⅰ型에 屬하며 土器 등 副葬遺物이 發見되었다.

① 外反口緣球形壺(高 八·一cm, 口徑 一一·二cm, 底徑 九·四cm)

灰黑色을 띤 硬質로서 口緣部는 짧게 外反했다. 口部內面에는 繩文이 남아 있으며 器表에는 물레자국이 나 있다. 底部는 平底이다.

② 直立口緣球形壺

其一是 高一三·四cm, 口徑一〇·〇cm, 底徑一一·六cm로 暗灰色의 硬質로서 胎土에는 砂粒이 섞여 있으며 짧은 直立口緣을 가지고 있다. 器身 全面에는 打捺條文이 희미하게 나 있으며 器壁은 고르지 못하다. 底部와 上下部를 分離成形하여 組合시킨 흔적을 볼 수 있다.

其二是 高一二·八cm, 口徑九·〇cm, 底徑一二·〇cm로 器身에 八葉形花文을 押印한 것이 特異하다.

其三是 高一五·七cm, 口徑一一·四cm, 底徑八·〇cm로 前記二點과 大同小異하다.

③ 蓋

寶珠形鈕를 부착하고 있으며 모두 灰色調의 硬質로서 턱을 갖추고 있다.

④ 蓋 杯

杯心은 앞은 원으로 口部는 內傾했다. 灰色이 들는 硬質이다.

二, 斗洛里甕棺墓

이 甕棺墓는 커다란 卵形大甕을 主官으로 하고 이에 球形壺를 副官으로 사용한 合口式으로 斜面에 거의 水平으로 横置하였다.¹⁴⁾

副官으로 사용된 球形壺는 大部分 破損되었으나 口部와 肩部는 잘 남아 있다. 文樣은 肩部以下外面을 간격이 좁은 繩文으로 施文하였고 胎土는 沙粒이 약간 섞인 粘土를 사용했으며 圓底이다.

III, 考察

一, 壺

壺는 先史時代부터 三國時代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양의 出土樣相을

보이고 있는 器種이다.

百濟土器에서도 例外없이 壺가 점유하는 遺物의 比는 他器種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 全時期를 通해 生活필수품으로서 사용된 點, 둘째, 壺가 지니는 傳統性, 셋째, 多用途의 使用이 용이한 點을 들 수 있겠다.

全北地方에서 發見된 壺의 種類는 外反口緣廣肩平底壺, 直立口緣廣肩平底壺, 耳付壺, 把手付壺, 外反口緣圓底壺, 細頸壺, 長頸壺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外反口緣廣肩平底壺는 益山土城에서 出土된 壺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文樣은 繩文이 肩部에서 胴體部 下段까지 조밀하게 施文되었다. 이러한 形態의 壺는 論山 表井里¹⁵⁾ 同 六谷里¹⁶⁾ 保寧 九龍里¹⁷⁾ 同 長峴里¹⁸⁾에서 出土된 바 있는데 이들 古墳은 割石造石室墳으로 平面長方形의 玄室과 羨道の 比가 비슷한 百濟末期의 古墳임을 考慮할 때 益山土城의 壺는 六C末에서 七C以後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特히 文樣에 있어 세련된 繩文이 施文된 點, 器表에 自然袖가 많이 묻어 있는 點은 역시 百濟末期의 한 要因으로 보인다.

直立口緣廣肩平底壺는 益山土城, 南原 草村里M六〇號墳과 雲谷里土器窯址에서는 그 口部片만이 出土되었다. 益山土城의 壺는 扶餘地方的 軍守里¹⁹⁾ 新里²⁰⁾ 雙北里²¹⁾ 등의 火葬墓의 葬骨容器로 사용된 壺와 同一한데 新里에서는 開元通寶와 共伴되어 그 時期는 七C以後로 생각된다. 草村里的의 壺는 割石造長方形石室東偏羨道の 古墳에서 出土된 것으로 器身이 球形에 가까워 그 時期에 있어서도 益山土城의 것보다 先行하며, 火葬墓의 墓制와 草村里的의 石室墳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扶餘地方的의 葬骨容器로 사용된 壺보다 時期的으로 앞선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外反口緣圓底壺는 高敞 松龍里, 南原 斗洛里에서 出土되었는데 이들 遺構는 모두 專用甕棺으로서 斗洛里的의 경우 甕棺의 副棺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年代는 甕棺과 同年代로 생각 된다. 松龍里甕棺은 卵形器身에 底部에는 圓形突起를 굽갈이 成形한 無文土器의 기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初期原三國時代人들의 產物로 보여져 그 時期는 二~三C에 해당된다.

長頸壺는 化龍里, 新月里, 그리고 最近에 文化財管理局에서 發掘調査한 益山 笠店里에서 發見되었다. 百濟故地の 長頸壺의 出土地는 靈岩 內洞里²² 同 萬樹里一號土壙墓,²³ 海南 月松里造山古墳²⁴ 錦山倉坪里²⁵ 등에서 그 出土例를 찾아볼 수 있다.

化龍里的 長頸壺는 口部가 넓어 廣口壺에 가까우며 頸部에는 二段으로 구획하여 波狀文을 施文하고 肩部가 평배한 平底이다. 이와같이 口部가 넓고 長頸의 壺는 井邑 雲鶴里C號石槨墓, 南原 月山里 M-1號, M-1C號²⁶에서 보이고 있어 그 年代는 五C後半以後로는 내려볼 수 없을 것 같다.

新月里的 壺는 그 遺構가 卵形胴體를 가진 合口式甕棺墓로서 축약된 頸部, 器形으로 보아 斗洛里나 松龍里的 甕棺年代보다 뒤지고 있어 新月里長頸壺의 年代는 四~五C初로 비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같이 百濟故地에서 長頸壺가 出現하는 것은 新羅나 伽耶와의 文化交流를 추정 가능케 하는데, 高敞 新月里 甕棺은 榮山江流域의 專用甕棺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百濟의 中央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時期에 이 地方의 文化樣相을 이해할 수 있는 資料로 보인다. 한편 益山 笠店里의 長頸壺는 그 遺構에 있어 公州地域의 石室墳과 通하고 있으면서 도 伽耶의 長頸壺가 發見되는 것은 西南海岸과 錦江을 通한 文化交流를 추측케 함은 물론 論山 連山地方의 土器와도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新月里에서 出土된 有蓋耳付壺는 萬樹里二號墳²⁷, 公州 南山里²⁸에서 出土된 것과 비슷하며 그 時期는 四C末~五C初로 추정해 본다.

益山土城의 四耳付圓筒形土器는 下部가 缺失되어 그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共伴遺物로 미루어 百濟末期가 될 것이다. 한편 口部에 두들긴 테를 두르고 있어 나무뚜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二、把手付容器

中月里石棺墓와 益山土城의 把手付容器는 壺形態에 把手를 부착했고 化龍里的 것은 盤形態에 四個의 把手를 부착하고 있다.

把手의 형태로 보아 中月里的 것은 器身에 비해 두꺼운 把手를 달아 實用的인 의미가 강하고 益山土城의 것은 끝을 말았으며 化龍里的 것은 끝부분이 치켜올라 신장적인 의미가 강하다 할 수 있겠다.

益山土城의 것은 壺形態에 있어 石材洞破壞墳出土²⁹의 것과 비슷하나 石村洞出土는 壺의 양쪽에 把手를 달고 있으며 끝이 말리지 않은 점이 다르다. 한편 끝이 말린 形態의 把手는 扶餘 定林寺址에서 出土된 바 있고, 益山土城의 共伴遺物이 百濟末期에 해당되어 이도 그에 따른 年代로 보인다.

中月里出土는 壺身은 益山土城과 거의 비슷하며 把手形態는 公州 南山里³⁰出土와 通하나 南山里的 것은 無文土器계통의 鉢形태로 中月里的 것보다는 先行한다. 中月里的 것은 外反된 口緣, 安定된 底部, 넓은 어깨, 共伴遺物이 細頸壺란 點은 益山土城의 것보다 先行하나 그 時期는 五C中葉以上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三、瓶形土器

細頸壺라 불리는 瓶形土器는 漢江地域의 可樂洞三號墳³¹ 芳萐洞五號墳³²에서 出土된 바 있는데 이들 유적이 대체로 五C中葉 前後로 編年되고 있어 이 瓶形土器는 五C以後에 出現된 것이라 하겠다.

益山土城과 雲谷里土器窯址의 瓶形土器는 論山 表井里³³ 同 六谷里³⁴ 保寧 九龍里³⁵ 등의 百濟末期의 遺蹟出土와 비슷한 양상을 하고 있다.

한편 益山土城에서 出土된 瓶形土器의 破片中에 口部破片이 多數發見되어 그 成形手法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얇은판으로 등근고리를 만들어 접합시킨 것으로 口部, 胴體部, 底部를 各各 成形한 三分法입을 알

수 있다.

中月里 石棺墓出土는 頸部가 益山土城의 것보다 넓으며 敷石으로 깔린 土器片들이 굵은 繩文이 施文된點, 石棺墓의 年代를 참고하면 益山の 것보다 先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四、三足土器

百濟土器中에서 가장 百濟의인 要素를 지닌 器種이 三足土器인데 現在까지 百濟故地에서만 出土되고 있다.

三足土器는 杯部의 形態에 따라 無蓋式과 有蓋式으로 區分되며 脚部의 成形手法에 따라 손빚음을 한 圓錐形과 대갈같은 施文具를 使用하여 成形한 角錐形으로 區分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學界에 보고되어있는 三足土器는 大部分 有蓋式이 主를 이루고 無蓋式인 것으로는 華城郡 日旺面 三里^⑥에서 出土된 例에 불과하다. 有蓋式에 있어서는 蓋에 通常의으로 杯狀形鈕를 부착하고 있으나 保寧 동대리^⑦에서는 無鈕式의 有蓋式 三足土器가 出土된 바 있다.

全北地方에서 三足土器를 반출한 遺蹟은 益山土城、新龍里土器窯址、中月里遺物散布地、雲谷里土器窯址、草村里 M三號墳、尺門里山城 등이다.

益山土城의 三足土器는 杯部가 얇으며 圓錐形足과 角錐形足이 共伴되며 完形은 發見되지 않았고 거의 破片이 主를 이룬다. 한편 足은 거의 杯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끝이 밖으로 반전된 것도 있어 安定感을 주고 있다.

新龍里의 것은 杯部가 얇은 것과 前者보다 깊은 것이 共存하여 足 역시 圓錐形과 角錐形이 共伴하고 있다.

以外的 全北地方의 것들은 杯心이 얇으며 모두 圓錐形足과 角錐形足이 共伴하고 있다.

尹武炳교수는 三足土器의 기원은 蓋杯形式에 三足を 附加함으로써

現했으며, 杯部가 두껍고 圓錐形足이 부착된 三足土器보다 杯部가 얇고 扁平하며 角錐形足を 부착한 것이 時期的으로 후에 出現한다는 見解를 밝힌 바 있다.^⑧

그런데 風納里에서 出土된 三足土器^⑨는 有蓋式으로 杯心이 깊고 넓으며 圓錐形足이 杯의 下部에서 안으로 모아져 부착되고 있으며, 夢村土城 B地域^⑩에서는 두꺼운 堆積層에서 初期百濟時代의 土器片들과 함께 三足土器가 出土되었는데 이 역시 風納里의 出土와 비슷한 形態를 하고 있다. 한편 無蓋式 三足土器인 日旺面出土의 것도 上記의 것과 같이 三足이 안으로 모아져 있다. 또한 最近發掘調査된 熊浦 笠店里의 三足土器도 風納里나 夢村土城의 것들 보다는 發達된 形式이지만 圓錐形의 三足이 안으로 모아져 부착되고 있다.

風納里土城이나 夢村土城은 百濟初期의 遺蹟이며, 日旺面遺蹟도 대체로 時期가 올라가는 球形身에 口部가 外反하고 短頸이 달린 圓底壺와 共伴되고 있으며, 笠店里古墳 역시 六C中葉以後로는 내릴 수 없는 것이어서 尹교수의 견해와 더불어 圓錐形三足이 안으로 모아진 形態의 三足土器를 時期의 先行要件으로 덧붙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全北地方의 三足土器들은 모두 有蓋式이며 杯心이 얇고 足에 있어서 圓錐形과 角錐形이 共伴되며 거의 三足이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있는 點은 後期的인 要素가 되고 있다. 또한 百濟末期의 遺蹟인 保寧 九龍里^⑪ 論山 表井里^⑫ 定林寺址^⑬ 등의 三足土器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點도 더욱 그러하다.

五、蓋 杯

蓋杯는 公州、扶餘地方에서는 三足土器와 共伴하는 例가 많으며 杯部의 形태가 三足土器의 杯部와 同一하여 破損品인 경우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器種이다. 한편 全北地方에 있어서는 高敞以南地域에서는 三足土器와 共伴하지 않으며, 그 形態에 있어서도 公州、扶餘地方出土의 것과 區分되어 진다. 이렇듯 百濟故地에서의 蓋杯의 分布는 廣域性을 갖는

器種이다.

百濟의 蓋杯는 蓋에 있어 無鈕式인 경우가 大部分으로 新羅나 伽耶의 蓋杯와 區分된다. 卽 百濟의 典型的인 蓋杯는 無鈕式蓋杯라 할 수 있다.

百濟蓋杯의 發生에 대해서는 日本에 있어서 五C에 우리나라의 土器 製作技術이 도입된 후 八~九C 종말기까지 가장 多量으로 生産된 土器가 百濟系統의 蓋杯였으며 六C末까지는 百濟式인 無鈕式의 百濟蓋杯만이 生産되고 있는點으로 미루어 百濟蓋杯의 發生은 日本의 須惠器의 出現以前인 五C初 또는 그와 前後하여 生産되기 始作했다고 볼 수 있겠다.

蓋杯는 그 杯部의 形態에 따라 杯心이 얇은 것과 杯心이 짙은 두 종류로 大別되는데 杯心이 얇은 蓋杯의 出土例는 論山 六谷里^⑭ 表井里^⑮ 등의 百濟末期의 古墳들이며, 杯心이 짙은 형태의 것은 潭陽 齊月里, ○靈岩 內洞里^⑯ 同 萬樹里^⑰ 등이며 그 中間의 것은 舒川 新松里, ⑱海南 日松里^⑲ 등에서 出土 되었다.

全北地方에 있어 杯心이 얇은 蓋杯는 益山土城, 新龍里土器窯址, 雲谷里土器窯址, 草村里古墳 등의 경우이며 杯心이 짙은 蓋杯의 出土地는 化龍里土器窯址, 시루봉산성, 中月里遺物散布地 등이며 笠店里的 蓋杯는 者後에 속하는데 이곳에서는 三足土器와 共伴한다. 한편 杯心이 얇은 蓋杯의 경우 대개 三足土器를 共伴한다.

杯心이 얇은 蓋杯는 三足土器와 共伴하는點, 또한 共伴遺物이 百濟後期的인 要素를 포함하고 있어 그 時期는 百濟中後期로 생각할 수 있겠다. 杯心이 짙은 형태의 蓋杯는 榮山江流域의 甕棺墓유적에서는 長頸壺, 有孔廣口小壺를 三足土器 대신에 共伴하고 있어 그 時期는 六C以後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新羅나 伽耶와의 文化交流를 通한 地域의인 特性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百濟石室墓인 海南 月松里 造山古墳^⑳에서는 百濟特有的인 土器와 伽耶系統인 長頸壺, 臺足이 낮은 달린 土器壺, 有孔廣口小壺를 共伴하고 있어 百濟의 支配에 속한 地域일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文化的 傳統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全北地方에서도 化龍里, 中月里 등 노령산맥以南에서는 杯心이 짙은 형태의 蓋杯가 發見되고 있는데, 井邑이나 高敞地方의 甕棺墓에서도 榮山江流域의 甕棺墓와 비슷한 副葬遺物을 伴출하고 있어 地域의인面에서 는 榮山江流域보다 이른 時期에 百濟文化를 同和, 흡수했다고 생각되는 데 이는 中月里에서의 三足土器의 蓋杯와의 共伴반출이 그 예라 할 것이다.

六、高 杯

高杯는 一般的으로 新羅나 伽耶地域에서 그 出土量이 많아 이 高杯는 新羅, 伽耶의 代表的이고 特色있는 器種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近來 百濟故地에서도 高杯의 出土量이 增加함에 따라 이에 대한 綜合的인 研究를 要한다 하겠다.

百濟故地에서 高杯가 出土된 地域은 芳莢洞四, 五號墳^㉑ 可樂洞三號墳^㉒ 大德郡 注山里^㉓ 錦山 倉坪里^㉔ 論山 連山地方^㉕ 海南 月松里^㉖ 羅州 德山里三號墳^㉗ 등이며 出土例가 不分明한 것들이 各大學博物館에 상당량 傳하고 있다.

全北地方에 있어 高杯의 出土地는 新龍里土器窯址, 中月里遺物散布地 등이다.

新龍里土器窯址에서 發見된 高杯는 有蓋式高杯이나 杯部는 넓고 杯心은 짙으며 杯의 口緣부분이 약간 벌어져 형식적인 두경받이턱을 하고 있어 無蓋式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臺足은 낮은편이며 透窓이 없는 것은 下部에서 급격히 벌어져 나팔형태이며, 透窓이 있는 경우에는 前者보다 臺足下部가 좁은편이다.

新龍里의 高杯와 비슷한 形態는 論山 表井里^㉘ 海南 月松里^㉙에서 發見된 바 있는데 表井里의 것은 洞里民이 수습한 것으로 확실한 遺構는 알 수 없으나, 月松里古墳은 表井里古墳群과 같은 類型에 속한다. 新龍里 高杯는 月松里의 高杯보다 臺足이 낮은편으로 그 形式上 약간 퇴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表井里의 高杯와는 거의 同一한 형태를 하고 있다. 한

편 月松里나 表井里的 古墳年代를 五C末이나 혹은 더 늦은 時期로 추정하고 있어 新龍里出土 高杯는 이들 年代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年代設定에 무리가 없었다면 百濟末期인 七C에 倉建된 益山彌勒寺址나, 益山土城, 王宮城址 등에서 新龍里式의 高杯가 出土되지 않는點은 新龍里窯址의 經營年代는 七C以前에 그 生産이 中斷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中月里의 高杯는 杯部가 넓고 杯心이 깊으며 낮은臺足에 여러개의 透窓를 뚫고 있는 것을 特徵으로 한다.

中月里出土와 같이 臺足과 杯가 비슷한 形態는 羅州 德山里三號墳에서 出土된 例를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有蓋式으로 발달된 直立口緣은 보통 以上으로 길어 그 구조상 실제로 있어서는 뚜껑없이 使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臺足은 中月里의 것보다 높으며 四個의 사다리꼴 透窓를 配置하고 있다.

中月里出土는 杯에 있어서 德山里의 것보다 발전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 卽 無蓋式인 경우에는 口緣部에 턱을 두지 않고 陰刻線帶를 두르고 있는點과 杯의 形態가 盃의 形態로 變化하고 있는點이다. 또한 臺足에 있어서도 더욱 낮아져 퇴화하고 있는데 더우기 透窓의 數도 많아져 장식적인 面이 가미되고 있어 德山里의 것보다는 약간 年代를 내려볼 수 있는 要因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形式上的 發達을 고려하고 德山里三號墳이 榮山江流域의 專用甕棺으로 五C後半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中月里의 高杯는 六C初中半으로 그 上限年代를 구할 수 있겠고 오히려 그보다 時期를 더 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IV, 結 論

以上에서 全北地方의 百濟土器를 器種別로 나누어 全北以外の 百濟遺

蹟出土土器와 비교, 考察을 통하여 그 性格을 살펴보고, 가능한 그 年代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益山土城의 遺物은 六C末에서 七C로 내려오는 遺物들로 생각되어 그 城의 築造時期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또한 陶硯의 出土와 長鼓를 半分하여 거꾸로 세운 듯한 器臺 역시 百濟末期의 것으로 이 年代와 부합된다 하겠다.

新龍里의 高杯는 表井里나 月松里의 高杯에서 時代가 크게 내려오지는 않아 그 時期는 六C에서 七C初에 經營되었던 窯의 生産品으로 추정되며 百濟高杯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생각된다.

三足土器는 杯心이 얇고 扁平한 형태로 百濟後期的인 要素를 지니며 圖錐形足과 角錐形足이 共存하며, 三足이 杯의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있는點 또한 後期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蓋杯에 있어서는 益山中心의 지역에서는 扶餘, 論山地方의 것과 같이 杯心이 얇고 扁平한 편이나 西南部地域인 井邑, 高敞地方의 蓋杯는 杯心이 깊은 것으로 榮山江流域에서 出土된 것들과 通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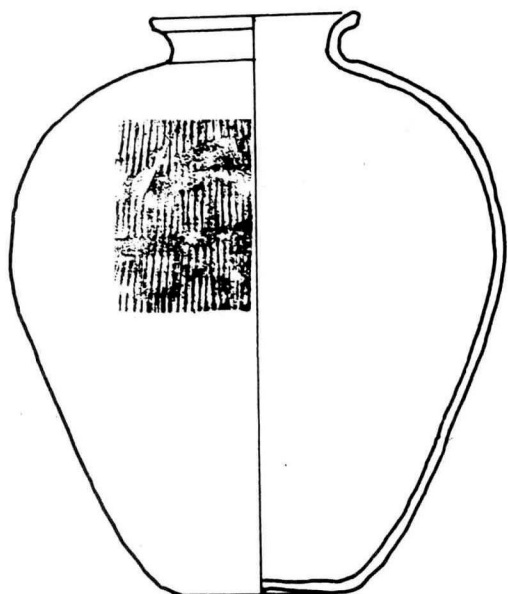
결국, 井邑, 高敞地域은 百濟勢力이 南下하기 以前에는 榮山江流域의 甕棺墓와 같은 文化양상을 찾을 수 있겠고, 특히 長頸壺, 有孔廣口小壺 등의 發見은 伽耶文化와의 文化접촉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루트는 西南海岸을 따라 이루어 졌다고 보인다. 最近 調査된 笠店里古墳의 性格이 규명되면 西海에서 錦江을 通한 百濟文化의 新羅, 伽耶, 日本, 中國 등과의 文化交流관계가 어느정도 풀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先學님들의 따가운叱咤를 바란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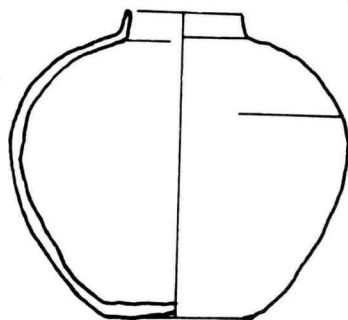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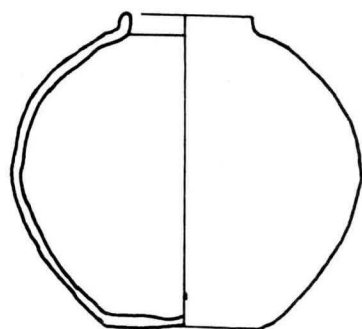
- ① 安承周 「百濟土器의 研究」百濟文化 一二輯 一九七九.
- ② 鄭明鎬 「報德城發掘報告」馬韓, 百濟文化研究所, 圓光大, 一九八一.
- ③ 全榮來 「益山五金山城發掘調查報告書」馬韓, 百濟文化研究所 遺蹟調查報告 第十二冊, 圓光大, 一九八五.
- ④ 尹武炳, 成周輝 「百濟山城의 新類型」百濟研究 八, 一九七七.
- ⑤ 全榮來 「古阜隱仙里古墳群」全北遺蹟調查報告書 二輯 全州, 一九七三.

- ⑥ 全榮來：「井邑雲鶴里 古墳群」全北遺蹟調查報告 三輯 全羅北道博物館、全州、一九七四。
- ⑦ 全榮來：「井邑德川面 시루봉山城」全北遺蹟調查報告 五輯 全羅北道博物館、全州、一九七五。
- ⑧ 全榮來：「古沙夫里」古阜地區 文化遺蹟調查報告書、井邑郡、一九八〇。
- ⑨ 小田富士雄：「百濟土器窯跡調査の成果」古文化談叢 一九八三。
- ⑩ 高敞 中月里 文化遺蹟調查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遺蹟調查報告 卷9號 一九八四、九。
- ⑪ 全榮來：「高敞、雲谷里百濟土器窯址發掘報告」高敞雅山면수물지구 文化財發掘調查報告書、全州市立博物館 一九八五。
- ⑫ 全榮來：「全北地方出土 甕棺墓二例」全北遺蹟調查報告、第一輯、全羅北道博物館。
- ⑬ 全榮來：「高敞 松龍里甕棺墓」全北遺蹟調查報告 第五輯、全羅北道博物館、一九八五。
- ⑭ 全榮來：「南原 草村里 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全北遺蹟調查報告 第一二輯、一九八一、一。
- ⑮ 全榮來：「全北地方出土 甕棺墓 一例」全北遺蹟調查報告 第一輯、全羅北道博物館。
- ⑯ 安承周：「論山 表井里古墳斗 土器」百濟文化五輯、一九七六、圖面Ⅱ。
- ⑰ 姜仁求：「論山 六谷里의 石室墳」百濟古墳研究 p. 171、一志社、一九七七。
- ⑱ 安承周：「保寧 九龍里 百濟古墳斗 出土遺物」百濟文化 一〇輯、一九七七。
- ⑲ 池健吉：「保寧 長峴里 百濟古墳斗 出土遺物」百濟文化 一一輯、一九七八。第一圖。
- ⑳ 姜仁永：「百濟古墳研究」一志社 一九七七、p. 128 圖七六。
- ㉑ 姜仁求：註一九 p. 126 圖七五。
- ㉒ 姜仁求：註一九 p. 136 圖八一。
- ㉓ 「靈岩內洞里 甕棺墓調查報告」慶熙大博物館、一九七四 p. 38。
- ㉔ 靈岩 萬樹里 古墳群「國立光州博物館 一九八四 p. 74 圖一七。
- ㉕ 「海南 月松里造山古墳」國立光州博物館 一九八四 p. 70 圖版三三。
- ㉖ 姜仁求：「錦山の 古墳斗 土器類」百濟古墳研究 一志社 一九七七年 p. 187 圖一〇一。
- ㉗ 全榮來：「南原 月山里古墳發掘調查報告書」圓光大 馬韓 百濟文化 研究所 一九八三、사진五七、사진五九。
- ㉘ 註一三三 p. 63 圖面 一〇。
- ㉙ 安承周：「公州 南山里 地域의 古代文化」百濟文化十三輯 一九八〇 p. 58 圖一〇。
- ㉚ 任孝宰：「石村洞 百濟初期古墳의 性格」考古美術 一一九、一三〇合輯 p.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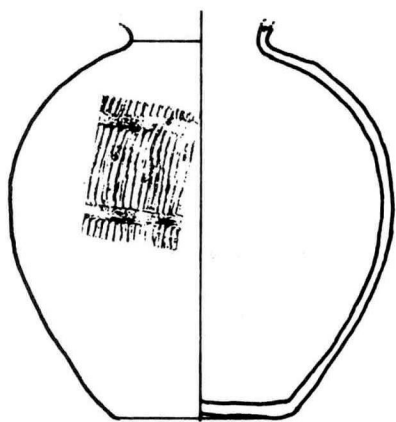
- 圖版二一一。
- ⑳ 安承周：註二八 p. 57 圖五、六
- ㉑ 「蠶室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蠶室地區 遺蹟發掘調查團 一九七五年度 圖版八。
- ㉒ 「蠶室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蠶室地區遺蹟發掘調查團 一九七六年度 圖版一一。
- ㉓ 尹武炳：「連山地方 百濟土器의 研究」百濟研究一〇輯 圖五—二。
- ㉔ 姜仁求：註一六 p. 171 圖九四。
- ㉕ 安承周：註一七。
- ㉖ 尹武炳：「京畿道 華城郡 日旺面 出土의 百濟土器」考古美術 一一二、一九六〇、p. 21 사진。
- ㉗ 尹武炳：註三三 pp. 35~36。
- ㉘ 金元龍：「新羅土器의 研究」國立博物館叢書 甲第四 一九六〇、p. 32, fig. 16, pl. 32, fig. 3.
- ㉙ 「夢村土城發掘報告書」夢村土城發掘調查團 一九八四、p. 163 도면 二七。
- ㉚ 安承周：註一七。
- ㉛ 尹武炳：註三三。
- ㉜ 「定林寺址」忠南大學校 博物館、忠清南道、一九八一。
- ㉝ 姜仁求：註一六 p. 172 圖九五。
- ㉞ 尹武炳：註三三。
- ㉟ 崔夢龍：「潭陽齊月里 百濟古墳斗 出土遺物」文化財 一九七六、一一、p. 137。插圖二。
- ④6 註一一一 참조。
- ④7 註一一一、p. 68 도면 一。
- ④8 池健吉：「忠南 海岸地方의 百濟古墳二例斗 出土遺物」百濟文化十輯 1977. 12. 註二四 p. 26 圖面五。
- ④9 註二四 p. 41~46。
- ⑤0 註三三 圖版一一。
- ⑤1 註三三 圖版一一。
- ⑤2 註三一 圖版八。
- ⑤3 尹武炳：「大淸면 수물지구 遺蹟發掘調查報告」忠清南道。
- ⑤4 姜仁求：註二五 참조
- ⑤5 尹武炳：註三三 참조
- ⑤6 註二四 참조
- ⑤7 「百濟土器圖錄」百濟開發研究院 一九八四、圖四二九。
- ⑤8 尹武炳：註三三 圖二一。
- ⑤9 註二四 圖版 二七、二八。
- ⑥0 註五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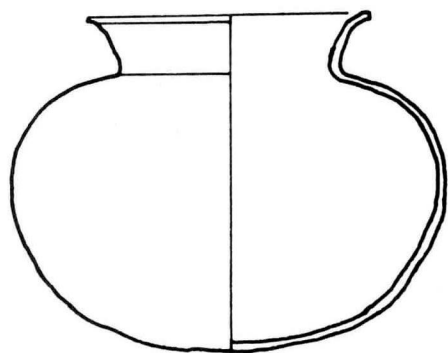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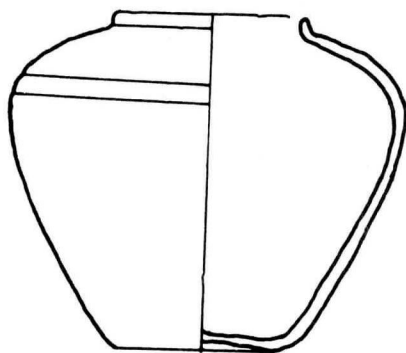
益山土城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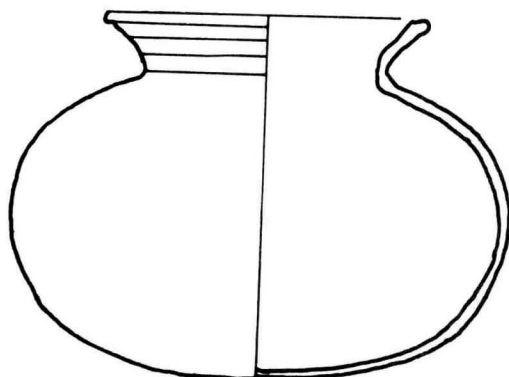
草村里出土



益山土城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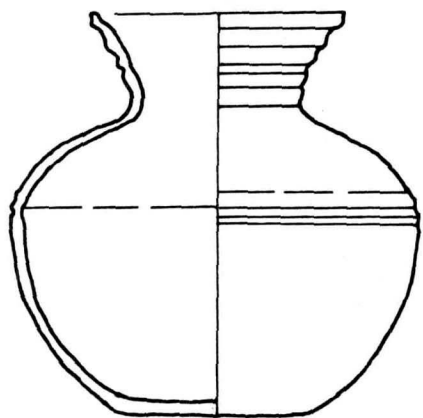


松籠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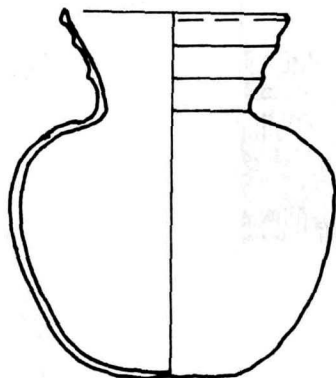


斗洛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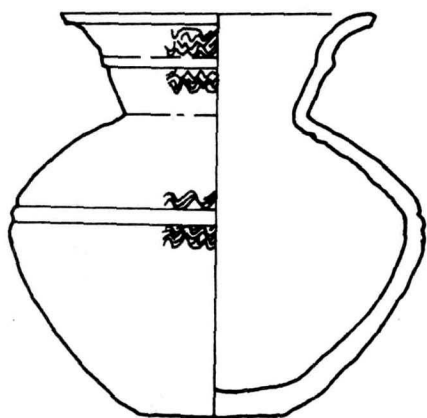
長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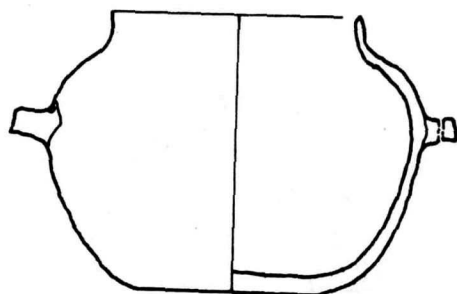
新月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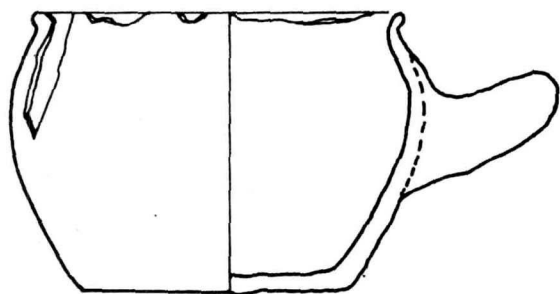
新月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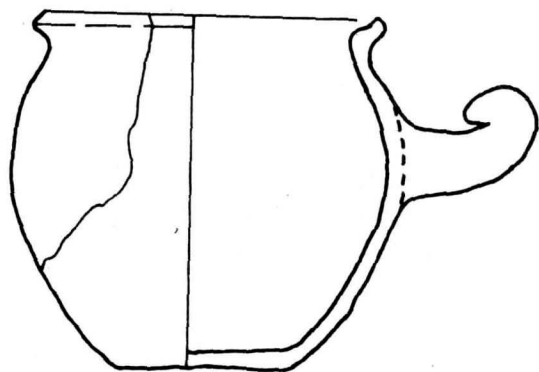
化龍里 出土



耳付壺, 新月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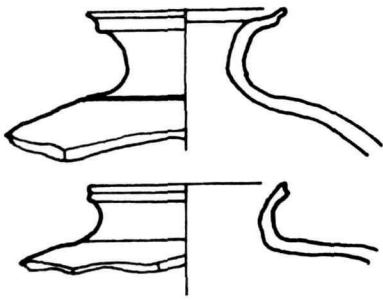


中月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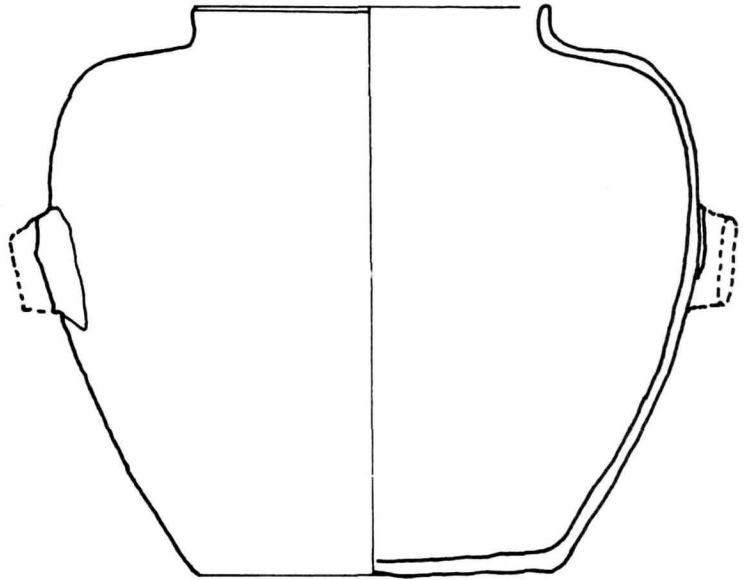


益山土城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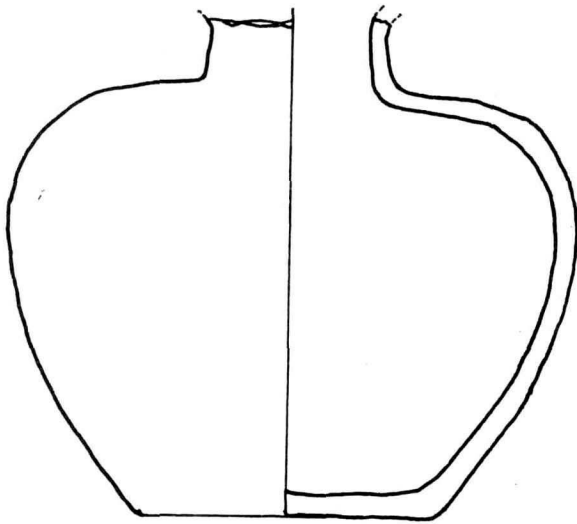
把手付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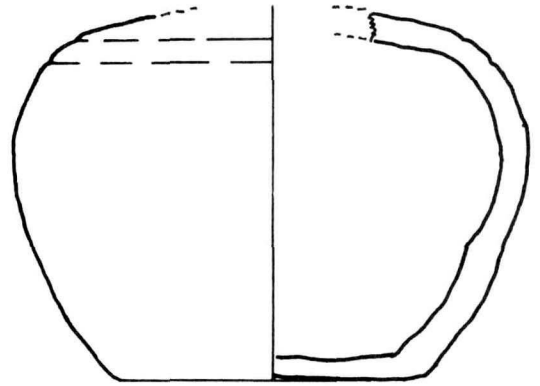
雲谷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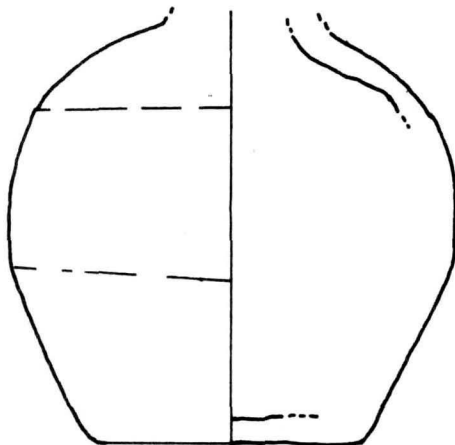
耳付壺 中月里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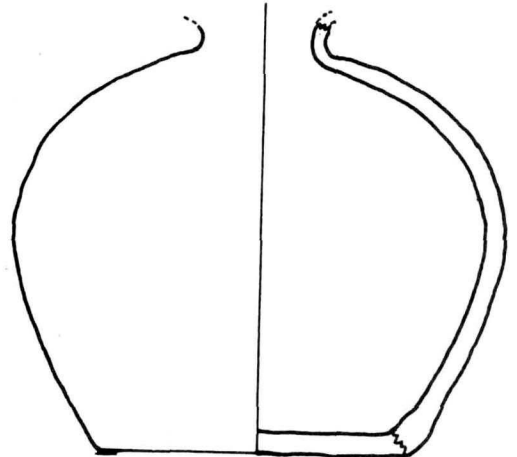
中月里 出土



益山土城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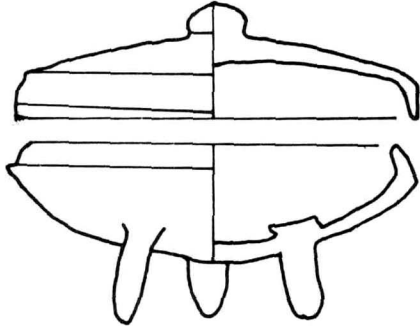
表井里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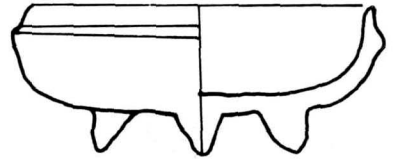
益山土城出土

瓶形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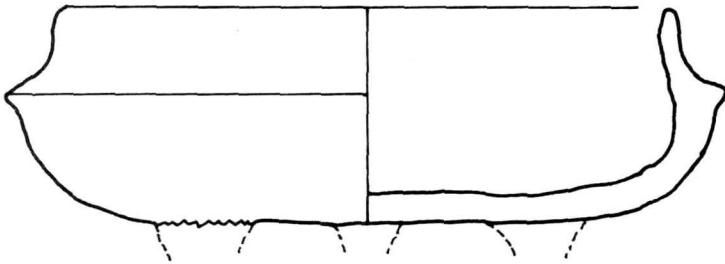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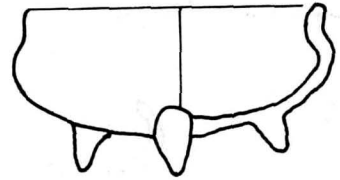
三足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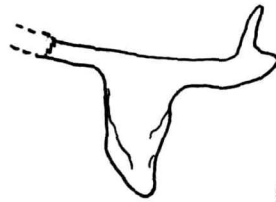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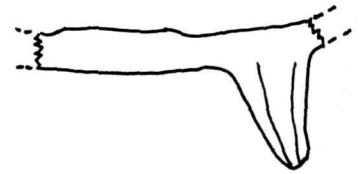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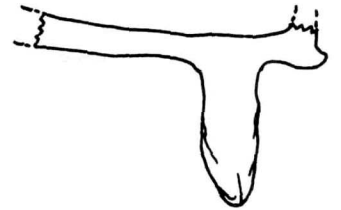
風納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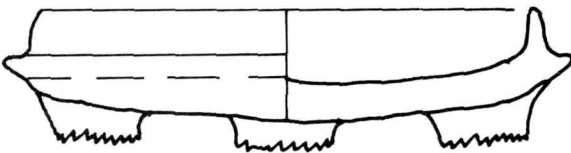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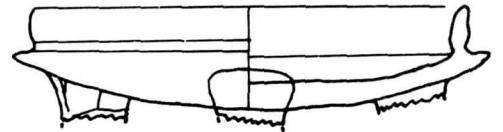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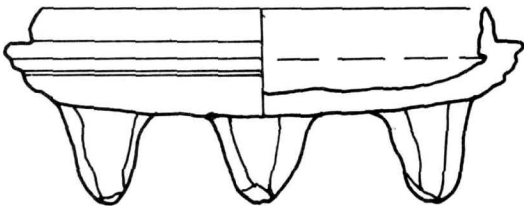
風納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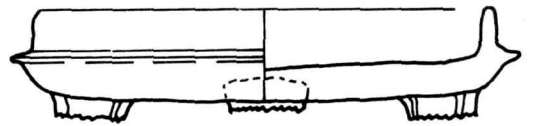
夢村土城 出土



新龍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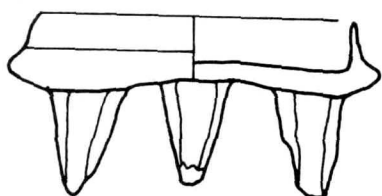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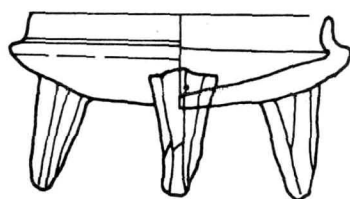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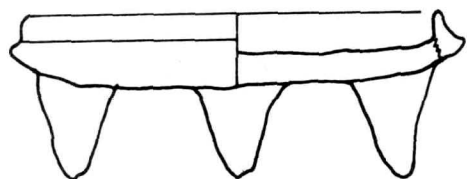


益山土城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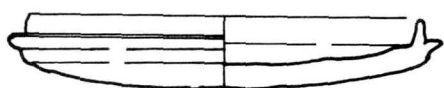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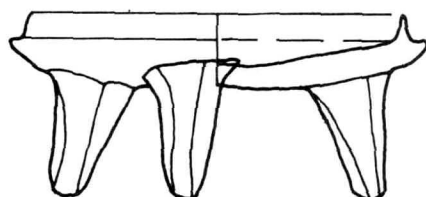


中月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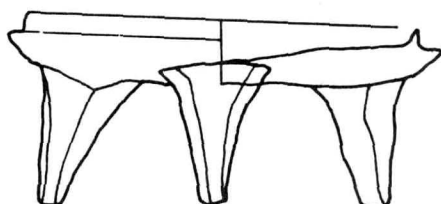
三足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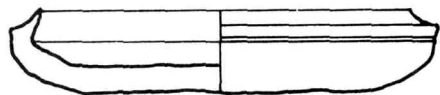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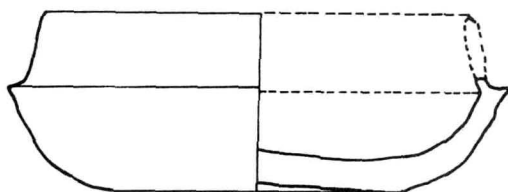
雲谷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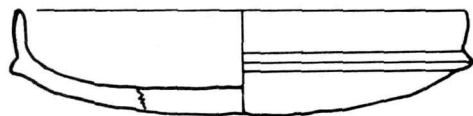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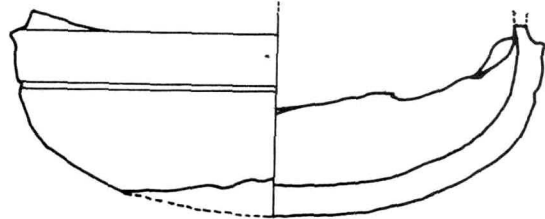
表井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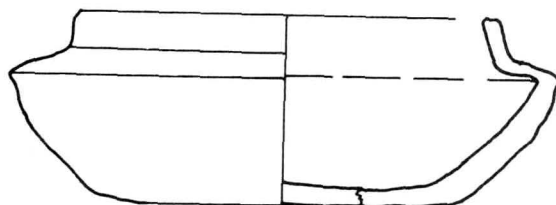
表井里 出土



草村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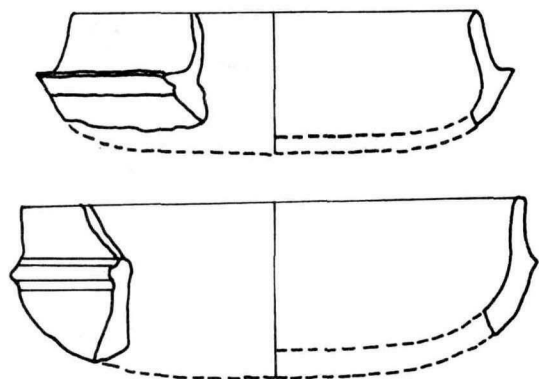
新龍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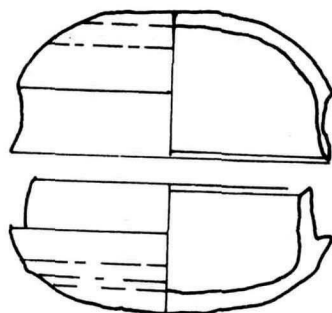
盖杯

中月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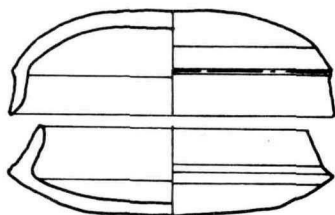
盖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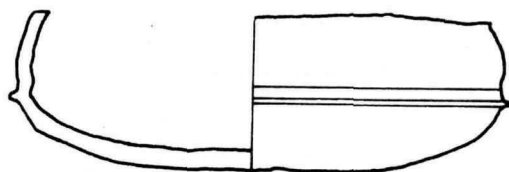
시루봉 산성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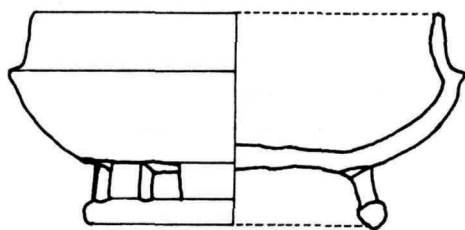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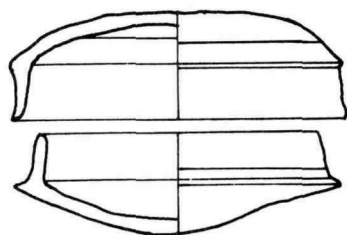
化龍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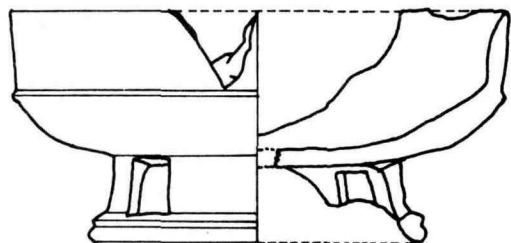
月松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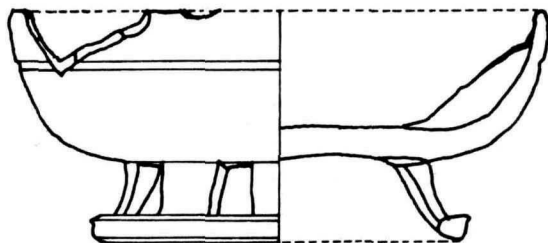
内洞里 出土



中月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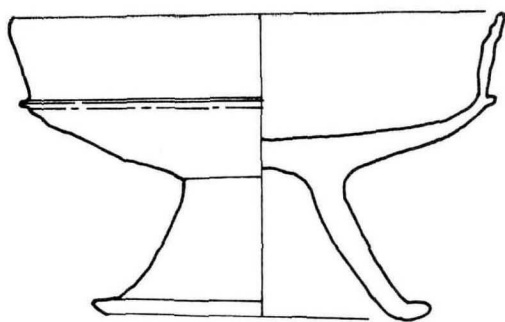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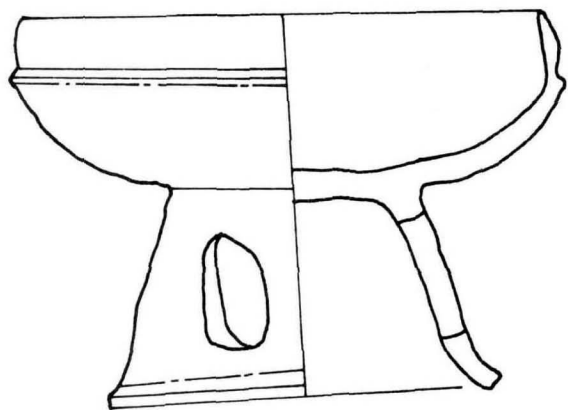


中月里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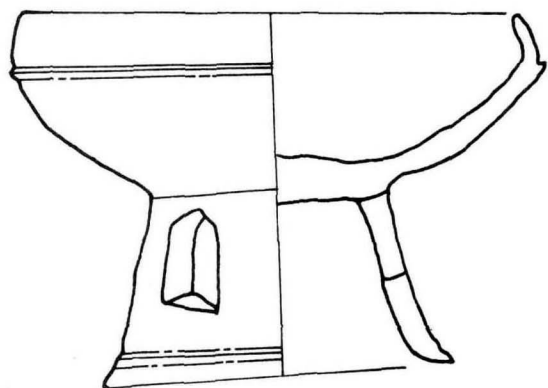


高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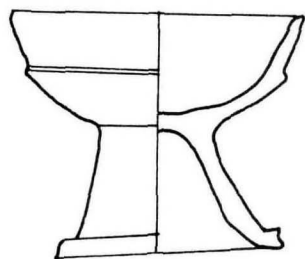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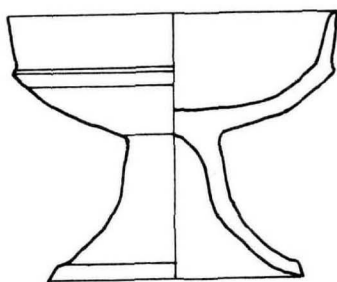
高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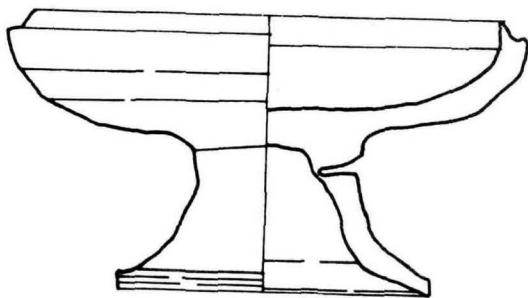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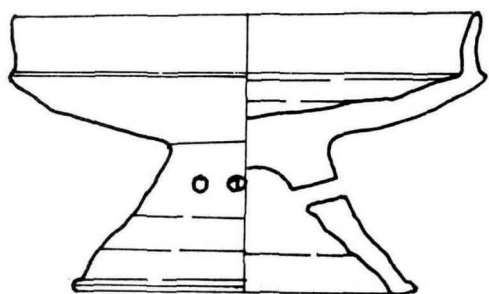
新龍里 出土



新龍里 出土



月松里 出土



表井里 出土